

한국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외교 강화전략 연구*



송 문 석

주저자 경성대학교
(inlibro@ks.ac.kr)



황 기 식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kshwang@dau.ac.kr)

국문요약

본 논문은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대학의 공공외교 강화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이 공공외교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정부는 유학생의 양적 유치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은 재정수지 개선 수단으로 유학생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게 되며 반한정서가 높은 상태에서 귀국하게 된다. 유학생 유치가 친한파가 아닌 반한파와 혐한파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외교 관점에서 볼 때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체류국가에 대한 호감도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체류국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실증한 ‘U-curve 이론’을 이용해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태도를 점검하고 호감도 변화 추이에 따른 정부와 대학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주제어 : 유학생, 공공외교, 문화적응, U-curve 이론, 반한정서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공외교(Public Diplomacy)¹⁾란 정부가 해외 공중(public)²⁾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자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대외 이미지와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Cull 2008; Gilboa 2008; Signitzer & Wamser 2006). 대한민국 공공외교법 제2조에서도 공공외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 문화 소개 등은 공공외교의 대표적 전략 중의 하나이다. 특히 유학 중인 대학에서 접촉하고 습득하는 언어와 문화, 사상, 가치, 이미지 등은 해당 국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yden 2009; 이희성 2012).

유학생들은 장기간에 걸쳐 체류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문화를 경험하면서 체류국과 국민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Yun & Vibber 2012). 이는 모국의 일반인이 대부분 자국 언론을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외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나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된 체류국과 체류국 국민들에 대한 태도는 간접 경험에 의한 그것보다 강력하며 지속적이다. 따라서 유학생의 체류국에 대한 태도는 학기 중이나 학업을 마치고 모국으로 귀국한 뒤에 자국민들에게 전파되며 그들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국가들이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을 통해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조성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

1) Public Diplomacy를 학계에서는 공공외교 혹은 공중외교로 번역해 사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공공외교법(제정(2016.2), 발효(2016.8))에 공공외교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도 공공외교로 용어를 통일한다.

2) 공중(公衆·public)은 라틴어의 푸블리쿠스(publicus·인민)에서 온 퍼블릭(public)의 역어이다. 르봉(Charles-Marie-Gustav Le Bon 1841-1931)이 근대사회의 인간을 비합리적·충동적 존재로 보고 미래사회를 ‘군중의 시대’로 본 데 반해 타르드(Jean Gabriel Tarde 1843-1904)는 인간을 합리적·독립적·자유적 존재로 파악하면서 미래를 ‘공중의 시대’로 봤다. 타르드는 신문을 매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공중의 출현이 여론을 활기있게 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예측했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731&cid=40942&categoryId=33370> (검색일: 2020. 01. 02.).

3) 출처: <http://www.law.go.kr/IsinfoP.do?lsiSeq=180836&efYd=20160804#0000> (검색일: 2020. 01. 02.).

려는 목적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Malone 1985).

2019년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과정 10만215명, 비학위과정 5만 9950명 등 모두 16만여 명에 달한다. 5년 전인 2014년 8만4891명과 비교하면 2배가 증가했다(교육부 2019). 이는 교육부가 200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Study Korea Project’⁴⁾를 추진해 온 결과이다(김한나 외 2016).

그러나 한국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해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유학생들이 한국인(한국 대학생 포함)들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반한감정을 갖게 됐다는 연구결과와 언론 보도도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단기 어학 연수생보다 2~4년 장기 체류 유학생의 반한감정이 높으며(김수한 외 2014), 중국 체류 당시 4%에 불과했던 반한정서 비율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41%로 급증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구자익 2010).

유학생은 모국에서 대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가 평균 이상이며, 대표적인 문화자본인 학력자본, 즉 학위를 취득할 경우 모국으로 귀국한 뒤 계급의 재생산 혹은 계급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 대학에서의 학위가 경제 자본으로 전환될 개연성도 높다. 장기적으로 유학생들은 모국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확률이 높다. 이는 유학을 했던 국가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모국 국민에게 전파할 때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향후 모국과 유학 체류국가 간 외교적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계급적 지위를 획득했을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관광객과는 달리 유학생이 갖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은 장기적으로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 중 41%가 국내 체류 중 반한감정을 갖게 됐다는 연구결과는 유학생 유치가 단기적 차원에서 경제적 이득은 거두고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 차원에서 오히려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유학생들이 체류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핵심이며, 이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4) ‘Study Korea Project(2005~2012)’는 교육부가 2004년 12월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유학수지 개선을 위해 수립한 추진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계획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교육체계를 세계화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했다. 2013년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Study Korea Project 2020(2013~2020)’으로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학생 증가세가 주춤하자 2015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유학생 20만 명 유치 목표를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했다.

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Ruben & Kealey 1979; Redmond & Buny 1993).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성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정부와 대학차원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재학하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정부와 대학이 취해야 할 정책적 차원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 시기별로 문화적응 단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연구로 입증된 기존의 ‘U-curve 이론’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고찰

1. 공공외교와 유학생의 전략적 가치

공공외교는 미국 터프츠(Tufts) 대학의 에드먼드 걸리언(Edmund Gullion) 교수가 1965년 학교에 에드워드 머로 공공외교센터를 세우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김명성 외 2007).⁵⁾

공공외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경성 국력(hard power)에 의존했던 기존의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문화 교육 예술 사회 등 연성 국력(soft power)⁶⁾를 활용하여 타국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활동이다(Nye 2008).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국은 하드 파워에 의존한 외교보다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외교를

5) 에드먼드 걸리언(Edmund Gullion)은 미국 Tufts 대학 Fletcher School of Law of Diplomacy 교수로 재직 중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 센터(The Edward R. Murrow Center of Public Diplomacy)를 세우면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에드먼드 걸리언은 머로우 센터 홍보 팸플릿에서 공공외교를 “공중(公衆)의 태도가 외교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해 갖는 영향력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당시 공공외교 개념은 정부 대 정부의 외교를 넘어서 외국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개되는 외교활동을 지칭했다.

6)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Joseph W. Nye Jr.가 1990년부터 사용한 신조어로 군사적 개입이나 경제적 제재 등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하드 파워(hard power)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바라는 것을 획득하는 힘을 말한다.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양자를 총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결합한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구사하기도 한다.

2.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1) 문화적응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한쪽 혹은 양쪽 집단에서 본래의 문화 패턴이 변하게 되는데 이를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고 한다(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 Herskovits 1938).

베리(Berry 1997)는 개인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때 자신이 속한 고유문화를 유지하려는 의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려는 의지 여부에 따라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으로 구분했다.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합(integration), 자신의 고유문화 유지에는 소극적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동화(assimilation),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 수용에는 소극적인 분리(separation), 자신의 고유문화 유지는 물론 새로운 문화 수용에도 소극적인 주변화(marginalization) 유형이 그것이다.

〈표 1〉 베리(Berry)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

차원		고유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긍정	부정
주류 문화를 수용하고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긍정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부정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출처: Berry(1997) 참조, 저자 재구성.

베리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은 많은 이민자나 유학생 등 새로운 문화에 편입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됐다.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4가지 유형 중 ‘통합(integration)’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연구됐다(Kealey & Protheroe 1996). 또 이민자나 이주민 유학생 등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통합’ 방식을 통해 문화적응을 할 경우 동화, 분리, 주변화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am & Berry 2006).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통합’ 수준으로 문화적응이 이뤄질 경우 가장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에 이른 반면 ‘주변화’ 수준의 문화적응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David, Okazaki & Saw 2009).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 이를 학자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라고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해왔다(Portes 1996; Kuo & Roysircer 2004).

포르테스(Portes 1996)는 소수 그룹의 구성원들이 지배그룹과 접촉할 때 지배그룹의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가치, 일상적 행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산두와 아스라바디(Sandhu & Asrabadi 1994)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고 할 때 개인 또는 집단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규정했다. 이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지각된 차별,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와 베리(Williams & Berry 1991)는 소수자들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울 불안 절망감 소외감 정체성혼란 신체적증상 등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유학생들 역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 것은 예외일 수 없다. 밀린크로프트와 레옹(Millinkrodt & Leong 1992)은 유학생들이 체류국의 언어, 학비, 사회적응, 향수, 역할갈등 등의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고통에 직면한다고 보고했다. 유학 생활이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하는 순기능적인 측면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스트레스라는 역기능도 발생한다(주동범 외 2013).

3) 미디어 이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외국인이 유학생생활 초기에 현지인과 대면접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중 미디어는 현지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로 기능한다(이현숙 2002). 유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부족하고 언어능력 한계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적은 대중 미디어를 더 선호하게 된다(Kim & GudyKunst 1987).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중 미디어 이용과 면대면 대화가 서로 상승적이며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면대면 대화가 증가할수록 미디어 이용의 효과 역시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다(이재신 외 2014).

4)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국인과 현지인의 직접적인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대중 미디어에 더해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과 직접적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많을수록 문화적응이 쉽다(Kim 2001).

유학생과 유사한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해외 주재원에 대한 연구에서도 직접적 대인커뮤니케이션이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진선규 외 2000),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고됐다(김현주 외 1997).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한국인과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박경우 외 2010).

5)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반한감정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반한감정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의 반한감정을 추적한 본격적인 연구는 확인할 수 없다. 전용수 외(2019)가 한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중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각된 차별감은 몽골 학생이 가장 강한 인식을 보였으며, 다음이 베트남,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향수병은 베트남, 중국, 몽골 학생 순으로 강하게 느꼈으며, 경제적 고민은 베트남, 중국, 몽골 순으로, 학습 스트레스는 베트남, 중국, 몽골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어 단정할 수 없으나 한국과 해당국가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감정에 국내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한국 내 유학생의 분포에서 중국 유학생이 44.4%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한중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학생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23.4%), 몽골(4.6%)에 대한 연구도 추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사회에 대한 유학생의 태도와 가치

1) 가치와 태도

가치(value)에 대한 정의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가치란 사전적으로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감정적·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한

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가치는 삶의 바람직한 궁극적인 상태로써 추상적인 개념이며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태도의 기반이 되는 신념으로 기능한다(Schwartz 2012). 이에 비해 태도(attitude)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평가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학자들에 따라서는 가치와 태도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하며(Campbell 1963), 태도보다는 가치를 보다 근원적인 개념, 또는 태도의 근저에 깔린 성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Rokeach 1979).

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태도

유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문화적 폐쇄성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다. 유학생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한국유학 추천의향, 한국 취업의향, 한국 재방문의향 등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김영기 외 2016).

이희성(2014)은 한국민들의 유학생 및 유학생의 모국에 대한 태도를 보고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체류국 국민들이 유학생 출신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유학생들도 체류국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외국에서도 이뤄졌다(Becker 1968; Davis 1971; Morris 1960).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중국인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반한정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보고가 이뤄졌다(구자익 2010; 서형 2010; 최지영 2011).

‘적대적 미디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⁷⁾’ 개념을 동원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인터넷 이용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한국 인터넷 이용은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국인과의 면대면 대화가 많을수록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완화되고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김소영 외 2013).

7) 적대적 미디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은 외국인이 자국이나 자국민에 대해 체류국 미디어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편향되게 지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다시 말해 미디어 내용의 객관성 혹은 편향성과는 별개로 특정 이슈에 있어서 강한 의견이나 신념을 지닌 수용자, 혹은 소수집단, 사회적으로 차별받기 쉬운 지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미디어 내용이 치우쳐 있다고 편향되게 인식하는 현상이다.

4. U-Curve 이론

U-curve 이론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Fulbright program)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오버그(Oberg 1960)가 문화적응 연구를 하면서 비롯됐다. 오버그(Oberg 1960)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주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외로움 두려움 불안 분노 불행감 등의 심리적 증상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오버그는 유학생의 문화적응이 4단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학 국가에 도착한 직후 나타나는 1단계는 허니문 단계(honeymoon stage)로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한 열광과 흥미로움으로 매료된 시기다. 2단계는 문화충격 단계(culture shock stage)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 좌절, 분노 등이 나타나면서 유학 국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3단계는 회복단계(recovery stage)로 유학 중인 주재국에 대한 호감이 반등하는 시기다. 4단계는 적응단계(adjustment stage)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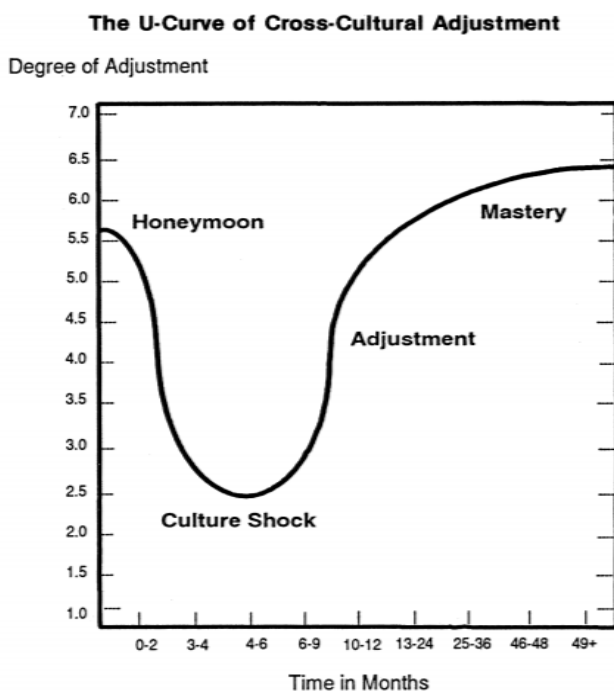
오버그의 4단계 U-curve 형태 이론은 1955년 리스가르드(Lysgaard 1955)가 미국에 유학 중인 노르웨이 출신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론을 확립했다. 세웰과 모리스, 데이비드센(Sewell, Morris & Davidsen 1954)도 또 다른 스칸디나비아 출신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U-curve 현상을 확인하고 이론을 뒷받침했다. 리스가르드는 미국에 유학중인 노르웨이인 출신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이 미국에 도착하고 6개월이 지나면서 호감도가 감소하기 시작해 18개월째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U-curve 이론 연구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다양한 국가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스콧(Scott 1956)은 스칸디나비아 출신 유학생을, 코홀로(Coehlo 1958)는 인도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1960년대에는 모리스(Morris 1960)가 다국적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세웰과 데이비드센(Sewell & Davidsen 1961)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 유학생을, 벡커(Becker 1968)는 유럽 인도 이스라엘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스콧과 세웰, 모리스 등은 스칸디나비아 학생들 사이에서 동일한 U-curve 형태 패턴을 확인했으며, 다른 연구자들도 유사한 U-curve 이론을 검증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연구대상도 다양해졌으며, U-curve 형태 패턴도 계속 재확인됐다. 히스(Heath 1970)는 다국적 출신 유학생을, 데이비스(Davis 1971)는 터키 출신 유학생을, 그린블라트(Greenblat 1971)는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출신 유학생을, 장(Chang 1973)은 대만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충격 단계(culture shock stage)를 언제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리스가르드는 문화충격 기간을 6~18개월, 장은 7~18개월, 모리스는 10~19개월로 보고해 대체로 18개월 무렵 문화충격 단계가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히스는 4~6개월, 데이비스는 2~3년을 문화적 충격기로 보고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유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에서 문화충격 단계는 짧게는 4~6개월, 길게는 2~3년으로 보고됐다(Black & Mendenhall 1991).

〈그림 1〉 U-curve 형태의 4단계 문화적응 변화



출처: Black & Mendelhall(1991, 227).

U-curve 이론이 미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에 집중해 연구됐다는 점에서 미국 이외 다른 국가 체류 유학생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이 점에서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충격 연구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Iwao & Hagiwara 1991; Kenkyukai 1997; Chung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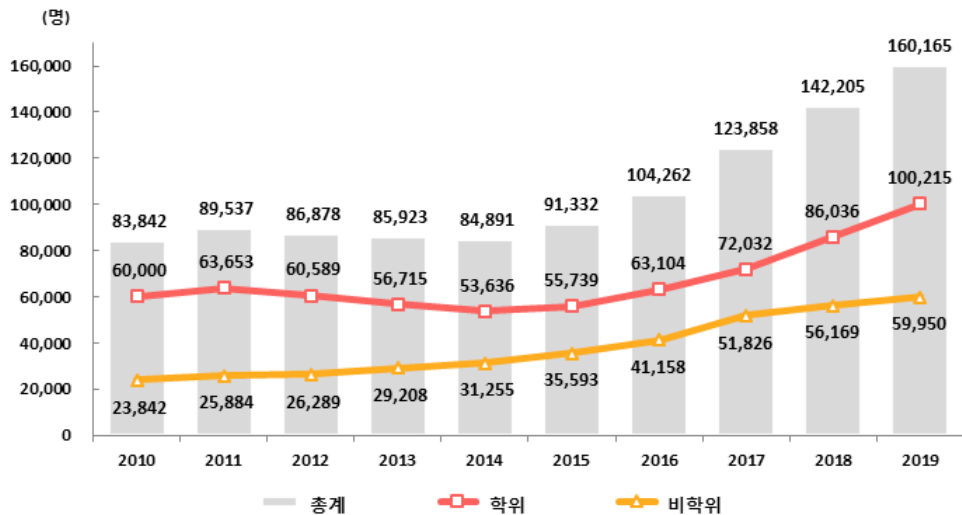
Ⅲ.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공공외교 정책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한국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국가적 차원에서 나선 것은 2000년 중반이다. 중국과 일본이 1980~1990년대 유학생 유치에 나선 것과 비교할 때 늦은 편이다.

교육부(2019)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⁸⁾은 2003년 1만2314명에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19년 12월 31일 현재 16만165명으로 집계됐다.

〈그림 2〉 외국인 유학생 수 추이



출처: <http://bit.ly/2SOrBa1> (검색일: 2019. 12. 31.).

2019년 12월 31일 현재 유학생을 출신국가 별로 보면 중국 7만1067명(44.4%), 베트남 3만7426명(23.4%), 몽골 7381명(4.6%), 일본 4392명(2.7%), 미국 2915명(1.8%), 기타 3만6984명(23.1%) 등이며, 전체에서 아시아 국가 출신이 14만5747명

8)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통계는 2013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했으며, 2014년부터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한 결과이다.

(91.0%)로 편중된 상태다. 유학생을 유학형태 별로 보면 전문학사·학사 6만5828명(41.1%), 석사 2만3605명(14.7%), 박사 1만782명(6.7%) 등 학위과정이 10만215명(62.6%)이고, 어학연수생 4만4756명(27.9%), 기타연수생 1만5194명(9.5%) 등 비학위과정이 5만9950명(37.4%)이다.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정책

한국 정부는 2004년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하고 외국인 유학생 인프라 구축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놨다.

정부는 2008년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을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업무 표준화를 시도했다. 외국인 유학생 운영체제의 부실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2009년 유학생 정책의 초점을 질 관리로 전환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어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단계별로 유치, 정주, 수학, 졸업 후로 시기를 나눠 단계별 맞춤형 국가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내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중도탈락, 불법체류 등 국내 대학의 유학생 관리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1a).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1년 9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교육부 2011b). 이 방안에서 교육부는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한(知韓)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확충해 지속적으로 국격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9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을 도입해 유학생 유치 관리에 관한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대학을 선정 및 인증했다.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초청 외국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⁹⁾ 등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사업

9) GKS는 1967년 한국 정부가 전 세계의 고등교육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한(親韓) 국제 인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국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며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967년부터 2019년

우선 지원 및 해외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교육부 2011c).

정부는 2012년 기존의 'Study Korea Project('05~'12)'를 수정 보완한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13~'2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고등교육의 질 향상, 국제화, 유학수지 개선, 한국에 우호적인 외국 인재풀 육성 등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GKS) 사업 규모 확대, 유학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 같은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지원방안 실시에도 불구하고 학업 및 생활 부적응, 배타적 문화 등으로 유학생들의 반한감정 문제가 노출되자 2014년 3월 교육부는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 2014).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TOPIK 졸업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유학생 증가세가 2011년부터 정체되자 교육부는 2015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을 보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목표 기한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했다(교육부 2015). 교육부는 유학생 저변확대, 출신국 다변화,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 등을 3대 전략으로 정하고,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어학연수생의 유학생으로 흡수, 우수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3.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공공외교와 정책적 한계

1)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방향

한국은 2016년 2월 공공외교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 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¹⁰⁾을 수립하고 공공외교 수행주체로 중앙부처 지자체 재외공관 민간 등을 지정했다.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 '공공외교위원회(위원장 외교부장관)'을

9월 1일 현재까지 GKS를 통해 배출된 졸업생은 156개국에서 전문학사 82명, 학사 1614명, 석사 6037명, 박사 1885명, 연구 177명 등 총 9795명이며, 전 세계 정계 재계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출처: <http://bit.ly/2SOJyp0> (검색일: 2019. 12. 13.).

10)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인 공공외교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공공외교 가이드 라인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연간 시행계획을 제출해 외교부가 이를 취합,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출처: <http://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ation.jsp> (검색일: 2019. 10. 23.).

설치하고 공공외교 정책 전반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는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을 지정해 한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외교 추진전략을 한국학 진흥과 한국어 보급, 문화자산을 활용한 감성 공공외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문화·지식 분야, 국민의 공공외교 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주안점을 둔 국민역량강화 분야, 주요국에 우리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 활동 중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크게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강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지원사업 두 가지다.

교육부는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을 전략과제로 정하고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해외에서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마련¹¹⁾,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진흥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 8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로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입장, 한국어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다(외교부 2018).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사업은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학위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도상국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수 외국인을 국내 대학에 초청해 한국어 연수(1년) 및 학위과정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¹²⁾

2) 유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공외교 지원책

정부가 잇따른 유학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학생 유치에서부터 입학, 재학, 졸업 후까지 전주기에 따른 정부와 대학의 지원정책이 미흡하고 겹돌다 보니 유학생들의 불만과 반한감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교육분야의 공공외교 정책이 추진기관 간에

11) 한국 정부는 재외 한국교육원을 18개 국가에 44개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19년 기본경비 예산(안)은 116억6백만 원이며, 이 중에서 운영비 일부를 공공외교 등의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외교부(2018), “2019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1(중앙행정기관)”.

12) GKS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국내 대학에 초청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2018년의 경우 생활비(월 80~90만 원), 등록금(학기당 500만 원 한도), 어학연수비(분기별 80만 원), 연구비(학기당 21~24만 원), 보험료(월 2만 원), 항공료(실비)가 지원됐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486억2600만 원이 반영됐다.

중복되거나 전시성, 행사 위주가 많아 유학생이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전한 것으로 여러 연구는 밝히고 있다. 유학생들이 한국어 학습, 지각된 차별감, 문화충격, 경제적 고민, 의사소통, 향수병 등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북 모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족한 한국어능력으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낮고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실망으로 연결돼 좌절감을 겪고 있었다. 또 한국 학생과의 교류기회 부족으로 한국어 실력 향상과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확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했다(정유리 2018).

대학 내 유학생 담당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다양한 유학생 관리 방안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이 대학에서 적절하고 시급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수와 상호작용이 부족하며, 학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을 학교 안의 기관을 알지 못하며 문화적 차이로 상담을 꺼렸다. 연구자들은 교수를 포함한 한국동료나 기관 등 적절한 지지 자원과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오혜영 외 2018).

유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 내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지도와 상담이 형식적이었으며, ‘외국인 유학생 담임제’ 실시가 요구됐다. 또 유학생은 사제관계는 물론 한국인 학생, 다른 출신국 학생들과도 사회적 관계가 미흡했고, 한국 학생과의 1대 1 매칭을 통해 유학생의 적응을 도와줄 것을 제안했다(박순영 2016).

IV. U-curve 단계별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전략

1.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U-curve 패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체류 기간별로 호감도를 정밀하게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형(2010), 구자익(2010), 백지숙(2008), 정유리(2018)의 연구를 종합하면 체류 기간별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가 나타나며, 전체적

으로 U-curve 패턴을 보이고 있다(이희성 2012).

구자익(2010)이 한국 체류 중국인 유학생 1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형적인 U-curve 형태 패턴의 호감도 변화를 보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체류기간 1년 미만 체류자는 반한정서가 28%로 낮게 나타났으며, 1~2년 48%, 2~3년 46%, 3~4년 57%, 4년 이상 40%로 나타났다. 한국체류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 초기 허니문 단계(honeymoon stage)인 1년 동안은 한국 사회에 호감도를 가지다가 점차 문화충격 단계(culture shock stage)로 접어들어 체류기간 3~4년째 반한정서가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체류기간 3~4년 그룹에서 반한정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신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와 감정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적대적 지각(hostile perception)을 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형(2010)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2~4년 되는 시기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장 많이 갖게 됐으며, 반한감정을 갖게 된 시기는 체류 2년 미만 7%, 2~4년 49.3%, 5~7년 31.3%로 보고했다.

이들 연구에서 보듯 한국체류 초기에는 환상을 갖고 새로운 문화를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 구자익 연구의 경우 3~4년, 서형 연구의 경우 2~4년 기간에 반한감정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는 언어 장벽이 사라져 한국인들과 한국 미디어에서 자신과 자신의 모국을 바라보는 태도와 보도 경향을 파악하고 부정적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적응 연구에서도 U-curve 형태의 패턴을 확인했다.

백지숙(2008)이 전남의 모 대학교에 유학 중인 다국적 유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적응 연구결과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유학생이 적응 정도가 가장 높았고 체류기간 2~3년 유학생의 적응정도가 가장 낮았다. 체류기간이 3년을 지나면서 적응정도는 다시 높아져 전형적인 U-curve 형태 패턴을 보였다. 경북 경산시 소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유리(2018)의 연구결과 1년 이상~2년 미만 거주한 외국인 유학생 보다 4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내 연구들을 종합할 때 비록 본격적으로 호감도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U-curve 이론을 한국에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U-curve 이론에 대한 해외의 선행 연구에 바탕을 두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U-curve 형태 단계별 문화적응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정부 및 대학의 법적 행정적 측면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호감도 하락단계(Honeymoon · Culture Shock stage)의 공공외교적 차원 대응전략

1) 허니문 단계 및 문화충격 단계에서 호감도에 미치는 요인과 문제점

유학생들이 체류국에 도착한 직후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매료된 시기로 호기심으로 들떠 있는 단계이다. 호감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다. 구자익(2010)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 도착하고 1년 미만의 허니문 단계에서 반한감정 소지자 비율이 28%를 기록했다. 한국에 오기 전 반한감정 소지자 비율이 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도 되지 않아 호감도가 급격하게 낮아진 것이다.

유학생들은 유학생생활 초기에 소속 대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만을 갖게 된다. 학기 초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는 반한정서로 전환되기도 한다. 문화 간 접촉에 있어서 초기 태도(attitude)가 관계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Amir 1969). 첫 인상이 태도로 형성되고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인적 네트워크 부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허니문 단계에서 많이 드러난다. 한국인 학생들은 언어가 서투르고 문화가 상이한 외국인 유학생을 기피하고 스터디 그룹이나 팀 프로젝트에 끼워주지 않으려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학생활 초기 적응의 어려움은 학업성취의 난관으로 이어지며 반한감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인 재학생들의 유학생과 유학생의 모국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왜곡된 인식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반한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재학 중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유학생 중심이 아니라 한국인 재학생 중심으로 이뤄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한국의 모든 역사와 문화적 자산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소개나 설명은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유학생을 배려하지 않는 대학 내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 제도 역시 반한정서를 높이는 요인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하는 대학 내 교직원이 없거나 관련 조직이 미흡한 것도 한국에 대한 반감을 부른다. 교직원은 물론 교수 등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관련자들의 유학생에 대한 물이해와 소홀한 응대, 편견 등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유학생들은 학교생활과 학업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모든 생활이 서툰 유학 초기에 집중된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부 대학은 유학생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유학생이 각자도생해야 할 정도로 시스템이 허술하다.

제도와 시스템의 부족에서 오는 불만과 불편도 많지만 반한감정으로 연결되는 요인은 대인커뮤니케이션의 부재 혹은 결핍이 크게 작용한다. 유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나 담당직원이 말아야 하는 영역도 있지만 밀접하게 도움을 줄 동급생이나 선배의 부재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많은 유학생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난감했다는 호소를 많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니문 단계를 지나 체류기간이 2년 정도가 되면 언어능력이 향상되면서 한국인 재학생과 한국인들과의 대인커뮤니케이션,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사소한 부정적인 표현일지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며 이는 곧 반한정서로 축적된다.

유학 초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호감도는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점차 낮아지게 되며, 중국 유학생의 경우 주재국인 한국에 도착한 지 1~2년 무렵에 반한정서 소지자가 48%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자역 2010).

2) 허니문 단계 및 문화충격 단계의 공공외교적 차원 대응전략

(1) 정부의 전략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초기 유치단계에서부터 졸업 이후 진로에 이르기까지 국가 기간산업을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면밀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차별적이고 중장기적인 유학생 유치·관리·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유학생의 유치와 입학, 졸업 후까지 전 과정의 정책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유학생을 수용하는 주체인 대학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A~Z까지 유학생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전국의 대학과 연계해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아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EQAS)'와 'Study Korea Project('05~'12)'에 이은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13~'20)',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행하지만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이 발생하고 유학생의 반한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여전히 정부 대책이 겹돌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가 유학생 20만 명 유치계획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매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우수대학에 대해 사증발급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TOPIK 졸업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한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특히 한국어능력은 유학생 생활 중 학업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유학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면 완화해주면 유학 중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만과 불평이 반한감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유학생 정책은 정부가 종합적인 가이드를 제작하되 대학별 능력과 수준, 관리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악용할 경우 엄격한 법적 제재를 구사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건강보험과 관련된 복지부, 졸업 이후 취업 등과 관련된 노동부, 대학, 기업 등 관련 기관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들 기관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불가능함은 물론 수립되더라도 형식적인 추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유학생 유치의 선진국인 호주의 사례는 벤치마킹할 만하다.

호주는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1.2%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국가이다. 2000년대 들어서 교육산업은 석탄, 철광석과 함께 호주의 3대 수출품으로 성장했다.

호주는 2008년 인도인 유학생에 대한 잇따른 폭행사건으로 유색인 유학생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 폭력이 대두됐다. 동시에 부실 사립교육기관의 폐교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착취 등으로 유학생 교육에 대한 평판이 악화되고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되자 공공외교 차원에서 유학생 정책을 전면 개선했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ESOS)'을 개정해 유학생의 권리보장, 양질의 정보제공, 교육서비스 질 제고, 위협에 처한 유학생의 거처를 지원하는 등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국가 브랜드화

하고 있다. 유학생을 위한 의료보험, 입학 전 어학교육,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영어교육, 장학금과 인턴 취업 등 생활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졸업 후에는 유학생을 위한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각 주는 부실 전문대학과 민간교육기관을 과감하게 폐교하거나 등록을 취소해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다.

(2) 대학의 전략

대학은 교육부의 표준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을 유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충분하게 전달하고 대학 자체적으로도 학사 행정과 시설,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해 오해로 인한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한국 정부와 소속 대학에 의견을 개진하고 민원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만과 오해를 조기에 해소시켜 반한감정으로 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는 유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불만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 데이터 수집의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는 정부 차원의 민원과 대학차원의 민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학교생활과 학업 등에 있어서 유학생과 한국 학생을 맨투맨으로 연결시켜 한국사회, 학사행정, 수업 등을 안내하고 도와줌으로써 유학초기의 불안정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유학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멘토, 유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인력풀을 확보해 투입하는 도우미, 명절이나 휴일에 한국가정에서 가족문화를 체험하는 홈스테이,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트 등의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학생 지원에 참여하는 한국 학생에게는 장학금, 봉사점수 등의 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은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갖게 하는 효과는 물론 국내 학생에게도 상대국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유학생에 대한 대학의 행정적 지원과 절차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 매뉴얼 개발은 필수적 과제다. 유학생들이 한국생활과 유학 중인 대학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오리엔테이션의 부재 혹은 부실로 지적됐다(구자익 2010). 한국 학생들도 신입생의 경우 입학 초기에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볼 때 의사소통과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3) 커뮤니케이션 전략

외국인이 새로운 정착사회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이고 강력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Kim 1977).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은 이처럼 이주민이나 유학생 등이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는 이론이다. 접촉가설의 주창자인 올포트(Allport 1954)는 개인이 다른 그룹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두 그룹이 만나 접촉하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상대에게 가졌던 편견(prejudice)도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이용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착사회의 미디어 이용은 대인커뮤니케이션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Kim 2001). 미디어를 이용한 정착사회의 이해와 습득과정은 접촉가설의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준사회적 접촉가설(parasocial contact hypothesis)로 확장된다. 마치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이 미디어 속 다른 문화권의 인물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본다(Schiappa, Gregg & Hewes 2005).

접촉가설과 준사회적 접촉가설은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에 있어서 대인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유학초기 한국사회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유학 초기 허니문 단계에서부터 대인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동아리를 통해 대면접촉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생활 안정과 유대감 증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은 올포트의 접촉효과를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조건, 즉 동등한 지위, 동일한 목표 공유, 그룹 간 협동 등을 갖추고 있어 대학 차원의 지원만 이뤄진다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유학생들이 단독으로 동아리를 결성해 활동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중 문화연구회’, ‘한·베트남 경제연구회’, ‘한·몽골 역사탐사회’ 등 양국 상호 간의 이해에 중점을 둔 동아리를 결성하고 정부, 기업, 대학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김선남(2007)은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이 대학적응과 성적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했다.

유학생들의 반한정서는 한국인 재학생 혹은 한국인들의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경우가 많다. 구자역(2010)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중국인을 무시하고’, ‘안 좋은 모든 상황을 중국에 빚대어 우스꽝스럽게 비꼬며 농담하는 것을 보고 불쾌한 느낌을 받았으며’, ‘한국인들은 거만한 태도로 중국인을 무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반한정서의 원인이 된다고 구자역은 지적했다.

중국 유학생의 경우 동북공정, 사드, 홍콩민주화시위, 베이징올림픽, 남북관계 등 한국과 중국 간에 밀접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 이슈로 인한 갈등이 반한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양국 간의 이슈를 도외시킬 수는 없으나 대학 내에서 한국인 학생들도 상대를 배려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대화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절실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전쟁, 라이 타이한, 베트남 경제와 한국 기업의 투자, 빈부격차, 노동문제, 결혼이주여성 등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유학생에 대한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한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커뮤니케이션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인 재학생과 유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왜곡된 시각이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로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파트너십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한다.

3. 호감도 상승단계(Adjustment · Mastery stage)의 공공외교적 차원 대응전략

1) 적응 단계 및 숙달 단계에서 호감도에 미치는 요인과 문제점

유학생들은 체류기간 3~4년째에 반한정서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적응단계에 들어서고 상승단계로 이어지며 호감도가 전체적으로 상승 패턴을 보이게 된다. 호감도 적응단계와 숙달단계를 시간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며 어렵다. 따라서 적응단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구 보고된 4~5년 이후부터 숙달단계까지를 하나로 묶어 반한정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4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대학원 재학생이 대부분이다. 체류 기간이 짧은 학부생과 어학연수생은 적응단계를 맞기 전, 즉 호감도 하락단계에서 출국하게 돼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학

은 유학생이 언젠가는 떠날 신분이라는 생각에 이들의 관리에 무심경하다.

숙달단계에 들어가는 유학생은 시기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취업 등 진로문제가 가장 민감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들은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유학생들도 학위 취득 후 한국에서의 취업에 관심이 많으나 정작 대학은 이들을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유학생은 학위 취득 후 당연히 귀국해 모국에서 취업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유학생들은 한국에 남기를 원한다. 2012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정책발전 대토론회’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취업정보 및 취업 지원정책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윤지환 2012).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은 졸업한 대학에 대해 특별한 우호정서를 가져야 함에도 재학시의 불만으로 인해 반한정서를 갖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구자익 2010). 유학생들은 향후 양국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한정서를 안고 졸업하게 되는 셈이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과제물 시험 조별활동 등에 있어서 한국인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우수한 학점을 받을 수 없는 등 학사 관리에 대한 불만이 많다. 기숙사 식당 상담실 등 생활환경의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도 반한정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금지, 기업체의 유급 인턴십 문제, 비자문제 등의 불편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2) 적응단계 및 숙달단계의 공공외교적 차원 대응전략

(1) 정부의 전략

정부는 유학생의 불만이 많은 아르바이트, 비자 등에 관한 법적인 제한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은 현지인들과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때 반한정서를 가지게 되며 이는 고정화될 수도 있다. 유학생에 대한 일괄적인 아르바이트 규제보다는 사설 외국어 학원과 관공서, 관광센터 등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함으로써 체류 중 경제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에 융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줌으로써 문화적응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한파, 지한파를 양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호주가 기술이민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지원자들의 반 이상이 호주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인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정부는 유학생의 출신지역, 학부대학, 성적, 특기, 장래희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공공외교적 차원에서 인력풀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우수한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친한파 유학생들을 최대한 늘려가야 한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을 위한 한국기업 취업 박람회’, ‘유학생 한국기업 취업 사례 보고’, ‘유학생 취업을 위한 모의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심어줌으로써 한국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게 된다. 유학을 마친 뒤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의 직업을 갖게 되는 유학생은 체류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1968).

일본 문부과학성과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는 모국의 학술 교육분야에 진출한 유학생에게 일본의 모교 연구자와 함께 단기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김우중 2011).

(2) 대학의 전략

적응단계 및 숙달단계는 유학생생활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해당되고 학위를 취득한 뒤에는 모국과 한국, 양국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인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인력풀로 활용해야 한다.

재학 중에 유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관리하고 졸업한 뒤에는 동문회 가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학과 연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교에 대한 소속감과 국제교류 활성화로 후배들의 모교 유학 유도 등은 물론 공공외교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정서함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특히 졸업 후 유학생이 모국으로 귀국한 이후 현지 동문회를 결성하도록 지원해 유학생들끼리는 물론 출신 대학교,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술과 연구교육 분야 종사자는 모교의 교환교수, 방문학자, 공동연구 등의 기회를 제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제자들을 다시 모교로 유학을 추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유학생은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유학을 올 때는 한류와 IT 기술, 높은 학문 수준과 선진 문화 등에 기대를 걸고 왔지만 공부를 마칠 때에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실망과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귀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학생을 유치해 친한 인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한 인사를 배출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학생은 체류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나 결혼 이주여성(남성), 경제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기간 체류한 뒤 귀국하는 이주 노동자와는 여러모로 다르고 특수하다. 유학생은 문화자본인 학위취득 이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상승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이주 노동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유학생의 공공외교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낮다. 정부도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공외교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형식적인 대책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또 유학생 정책의 경우에도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해 20만 명 유학생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양적 성장에만 매진할 뿐 질적 관리에는 소홀한 편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유학생들이 체류 중 반한감정을 갖게 되고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2023년까지 20만 명을 유치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화와 유학수지 개선 등과 함께 한국에 우호적인 외국 인재풀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적 성장에 치우치고 있다. 대학 재정 확충과 유학수지 개선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해 유학생의 질적 관리에 실패하는 것은 ‘되로 받고 말로 주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한국 유학의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유학 홈페이지를 구축해 일원화함으로써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 각 대학 홈페이지를 링크함으로써 유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개별적인 상세 소개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EQAS)’를 도입해 우수대학 모범 기

준을 제시하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등 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수의 유학생들은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사에 대한 불만과 불편, 기숙사와 식당 등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의 불만, 교수와 동료 한국 학생들의 편견과 몰이해 등은 소외감과 부정적 정서감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반한감정으로 비화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유학생 초기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생활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함께 유학생 전담조직을 운영해 24시간 지원체제를 갖춰 사소한 불만과 불편이 반한정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한국 학생들은 학교 내에 유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팀 프로젝트에 유학생이 팀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꺼리는 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한국 학생들이 극심한 취업난에다 동료 학생들 간 경쟁심이 작용한 결과로 대학과 교수가 학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대학 현장에 천착해 이뤄져야 하며 대응책 역시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유학생들은 소수자인데다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을의 위치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쉽사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나 감정 밑바닥에 분노와 좌절, 반감을 쌓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간의 문화적 접촉은 단순히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장래에는 친한파 인재를 육성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며, 한국 학생은 국제화와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득을 거두게 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갖고 있다.

미국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U-curve 형태 이론은 수차 검증됐다.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U-curve 패턴은 검증됐다. 미국 유학생은 물론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도 U-curve 형태의 호감도 패턴을 보인 것은 U-curve 이론의 일반화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호감도 변화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구자익(2010)의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U-curve를 보인 것이 드문 연구사례다. 미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U-curve 패턴을 보인 것을 바탕으로 구자익의 연구와 몇몇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례를 원용해 본 연구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학생 유치 이후 공공외교적 차원의 강화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 중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U-curve 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적별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효적이고 정밀한 공공외교적 차원의 문화적응 대응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공공외교적 측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으며, 유학생의 체류국에 대한 호감도는 관계 당사국은 물론 양국 국민들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다.



- 구자역. 2010.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국내체류 중국인 유학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3-46.
- 김명성·안혜경. 2007. 9.11 이후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 김선남. 2007. 중국 유학생의 국내 대학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정치정보연구 10(1), 185-206.
- 김소영·양정애·양승목. 2013. 한국 미디어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대적 지각이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미디어 이용 및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예측변인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7, 33-75.
- 김수한·유다형. 2014. 인천시 중국인 유학생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김영기·김찬석·문송이·박진수. 2016. 외국인 유학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경로분석 연구. 한국언론학보 60(2), 305-337.
- 김우중. 2011.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김한나·우한솔·이승호. 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 교육연구 17(4), 311-337.
- 김현주·전관희·이혜경. 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0, 105-139.
- 박경우·여은호. 2010.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소통 인식에 관한 연구. Speech & Communication 14, 64-94.
- 박순영. 2016.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4(2), 75-102.
- 백지숙. 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 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119-131.
- 서형. 2010. 재한 중국인의 반한 감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혜영·이윤희. 2018. 국내 대학 담당자들이 인식한 외국인 유학생의 어려움과 심리지원

- 방안. 한국웰니스학회지 13(4), 101-121.
- 윤지환. 2012. 외국인 유학생 10만 시대 체계적인 지원방안 논의. 주간한국. 3월 4일.
 - 이재신 · 이문광 · 류재미 · 최문훈. 2014.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통합에 대한 영향 요인 탐구. 한국언론학보 58(5), 233-454.
 - 이현숙. 2002. 문화간 불확실성에 따른 교민들의 자국방송 시청동기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0(2), 152-186.
 - 이희성. 2012. 중국 유학생에 대한 공중외교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U-curve 이론의 단계별 전략 고찰. 언론과학연구 12(2), 451-477.
 - _____. 2014.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태도 형성 요인 및 요인 간 관계 연구 : 공중외교 관점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4, 229-263.
 - 전용수 · Tran Nguyen Nguyen Han · 전규미. 201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가별 문화 적응 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연구. 언어학연구 50, 347-363.
 - 정유리.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및 일상생활 어려움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8(2), 150-185.
 - 주동범 · 김향화. 201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 진선규 · 박재수. 2000. 해외 주재원의 문화 적응과정에서 불확실성 감소와 해외체류에 대한 만족. 경영학연구 29(2), 197-212.
 - 최지영. 2011.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 국제정치논총 51(1).
 - 한국문화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Perseus Books.
 - Amir, Yehuda.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71(5), 319-342.
 - Becker, T. 1968. Pattern of attitudinal changes among foreign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3(4), 431-442.
 - Black, J. Stewart., & Mendelhall, M. 1991. The U-curve adjustment hypothesis revisited: A review &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2(2), 225-247.

- Campbell, D. 1963. Social attitudes and other acquired behavioral dispositions.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Wiley, 94-172.
- Chang, H. B. 1973. Attitudes of Chi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58, 66-77.
- Chung, T. G. 1998. *Nihon(Irubaon) no Imaji: Kankokujin no Nihonkan(The Image of Japan: Korean Perception of Japan)*. Chuo Koronsha.
- Coelho, G. V. 1958. *Changing Images of America: A Study of Indian Students' Perceptions*. Glencoe. Free Press.
- Cull, N.J. 2008.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31-54.
- David, E. J. R., Okazaki, S., & Saw, A. 2009. Bicultural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correlat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56, 211-226.
- Davis, J. 1971. The two-way mirror and the U-curve: America as seen by Turkish students returned home. *Sociology & Social Research* 56(1), 29-43.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Addison-Wesley.
- Gilboa, E. 2008. Searching for a theory of public diplo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55-77.
- Greenblat, C. 1971. Foreign students in the US: A study of attitudes and orientations. *Sociological Focus* 4(3), 17-35.
- Hayden, C. 2009. Applied public diplomacy: A marketing communications exchange program in Saudi Arabi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4), 533-548.
- Heath, G. L. 1970. Foreign student attitudes at international house, Berkeley. *Internation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5(3), 66-70.
- Herskovits, M.J. 1938. *Acculturation: The study of culture contact*. J.J. Augustin.
- Kenkyukai, H. C. 1997. *Tokyo Daigaku no Kankokujin Ryugakusei: Sono Seikatsu Jokyō to Nihon Kankei e no Teigen(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Tokyo: Their Living Condition and Proposals for Japan-Korean Relations)*. Tokyo

University Press.

- Iwao, S., & Hagiwara, K. 1991. *Nihon de Manabu Ryugakusei-Shakai Shinrigaku Bunseki*(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Keisoushobo.
- Kealey, D. J., & Protheroe, D. R. 1996. The effectiveness of cross-cultural training for expatriates: an assessment of the literature on the issu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20(2), 41-165.
- Kim, Y. Y. 1977. Communication patterns of foreign immigrants in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 66-77.
- Kim, Y. Y. 2001. *Becoming intercultural: An integrative theory of communication and cross-cultural adaption*. Sage.
- Kim, Y. Y., & GudyKunst, W. B. 1987. *Cross-cultural adaptation current approaches*. Sage.
- Kuo, B., & Roysircar. 2004. Predictors of acculturation for Chinese adolescents in Canada: Age of arrival, length of stay, social class, and english reading ability.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 143-154.
- Lysgaard, S. 1955. Adjustment in a foreign society: Norwegian Fulbright grantees visiting th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7, 45-51.
- Malone, G. 1985. Managing public diplomacy. *Washington Quarterly* 8(3), 199-213.
- Millinckrodt, B., & Leong, F. T. L. 1992.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71-78.
- Morris, R. T. 1960. *The two-way mirro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Nye, J.S. 2008.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94-109.
- Oberg, K. 1960. Culture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Portes, P. R. 1996. Ethnicity in education and psychology. In D. Berlinger & R. Calfee(Eds.). *The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Macmillan, 331-358.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Redmond, M., & Buny, J. 1993. The relationship of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with stress and the handling of stress as reported by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17, 235-254.
- Rokeach, M. 1979. *Understanding Human Value*. Free Press.
- Ruben, Brent D., & Kealey, Daniel J. 1979. Behavioral assessment of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the prediction of cross-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3(1), 15-47.
- Sam, D. L., & Berry, J. W. 2006.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hu, D., & Asrabadi, 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on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 2005.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Communication Monographs* 72, 92-115.
- Schwartz, S. H. 2012.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11.
- Scott, F. D. 1956. *The American experience of Swedish students: Retrospect and aftermath*. Minnesota University Press.
- Sewell, W. H., & Davidsen, O. M. 1961. *Scandinavian students on an American campu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ewell, W. H., Morris, R. T., & Davidsen, O. H. 1954. Scandinavian students' image of the United States: A study in cross-cultural educ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295, 126-135.
- Signitzer, B. H., & Wamser, C. 2006. Public diplomacy: A specific governmental public relations function. In C. Botan & V. Hazleton(Eds.), *Public relation theory II*. Lawrence Erlbaum Associates, 435-464.
- Will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y* 40, 501-510.
- Yun, S.H., & Vibber, K. 2012. The strategic values and communicative action of Chinese students for sociological Korean public diplomacy. *International Journal*

of Strategic Communication 6(1).

- 교육부. 2011a.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조사 결과(2011. 02. 21.).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34089&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636&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19. 12. 31.).
- _____. 2011b.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2011. 08. 16.).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34755&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570&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19. 12. 31.).
- _____. 2011c.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본격 시행(2011. 09. 22.).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34888&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556&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19. 12. 31.).
- _____. 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2014. 03. 06.).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52792&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325&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19. 12. 31.).
- _____. 201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2015. 07. 07.).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59915&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256&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19. 12. 31.).
- _____. 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2019. 08. 29.).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37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5&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19. 12. 31.).
- 외교부. 2018. 2019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 투고일: 2020.01.03. ● 심사일: 2020.01.17. ● 게재확정일: 2020.02.18.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Public Diplomac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Song Moonseok (Kyung Sung University)

Hwang Kisik (Dong-A University)

This paper confirms the strategic value of foreign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and suggests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public diplomacy of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The age of 200,000 foreign students is ahead.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foreign students are an important strategic asset in public diplomacy, domestic research on them is less active than in foreign countries. The government also focuses on quantitatively attracting foreign students, and universities tend to recognize it as a poor fiscal balance. As a result, foreign students' attitude toward Korea gradually decreases with time, and they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with higher anti-establishment. Criticisms are raised that foreign student attraction is fostering anti-Korean and anti-Koreans, not pro-Korean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trends of foreign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and their preference for their country of residen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s of foreign students staying in Korea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based on trends in their attractiveness, using the "U-curve theory" established as a theory of foreign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and attitude toward the country of residence.

<Key words> Foreign students, Public Diplomacy, U-curve theory, Anti-Korean Sentiment, Favorability, Cultural adaptation, Acculturation